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품·소재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

21세기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품·소재산업

CPU ▶ 컴퓨터

전 세계 10억대가 넘는 컴퓨터의 80%는 인텔사의 CPU를 사용하고 있다. 본체가격의 30% 수준인 이 핵심부품을 통해 2003년 인텔은 우리나라에 공급된 262만대의 PC에서 약 7860억원 매출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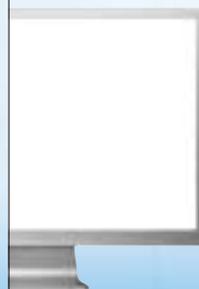
집적회로 ▶ 휴대폰

우리나라가 작년 1억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을 석권할 때 퀄컴사는 CDMA기술의 보유만으로 단말기 당 약 5.5%의 로열티를 챙겼다. 지난 1995년 이후 우리 통신업체들이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만도 2조여원에 육박한다.



액정소재 ▶ LCD모니터

IT수출품인 LCD의 경우, 장비의 국산화율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모니터 부품의 국산화율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TFT-LCD 액정 제조기업인 독일 머크사는 액정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액정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점유율이 90%를 점유하고 있다.



커먼레일 ▶ 디젤승합차

연료를 세밀화시켜 완전연소를 구현하고 소음과 진동, 공해를 줄이면서도 디젤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연료분사의 원천기술을 가진 보쉬, 덴소, 델파이 3사는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중 보쉬는 커먼레일 및 자동차 부품의 핵심기술을 통해 연간 350억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CNC컨트롤러 ▶ 공작기계

일본의 화낙은 연구개발 직원이 전체 종업원의 80%에 달하는 공장자동화 전문기업이다. 이들이 보유한 수치제어장치(CNC)의 핵심기술을 전 세계 공작기계 제조사들이 원천기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58%의 점유를 통해 16조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지난 1980년부터 조립가공의 생산시스템을 핵심 부품·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을 소재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값싸고 품질만 보장되면 세계 어디서라도 부품을 조달하는 글로벌소싱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중심의 부품·소재의 발전없이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자립적인 경제발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가경쟁력 제고의 요체로 부품·소재산업이 등장하였고, 첨단 부품·소재는 신제품 출현과 완제품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요체, 벤처

21세기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시대가 되었지만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형의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첨단 완제품의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앞당긴 인터넷의 보급 이면에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품·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세계 각국들이 이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산업 활성화에 뛰어들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국가경쟁력을 요체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고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간 우리 벤처기업은 많은 부품·소재 성공신화를 만들어 왔다. 시스템온칩(SoC)으로 세계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업체도 있었고, 자사의 기술과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MP3플레이어업체도 있었다. 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코팅제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 등 우리 부품·소재의 성공신화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은 일본 등 부품·소재강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세계 1, 2위의 휴대폰 생산국가가 되었지만 국산화율은 50~80% 수준에 머물고, 수출 효자상품이라고 일컫는 반도체의 경우 제조에 쓰이는 값싼 광역의 국산화율이 고작 30%선에 불과하다. 또, 비메모리 칩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또 역설적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이 그만큼 도전할 분야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벤처기업들에게는 '벤처정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독이 정신이 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이 하나 둘 가시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 국가경쟁력을 지속·발전시켜주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Win-Win할 수도 있으며, 변화와 발전을 통한 선순환으로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히든카드는 바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다. 경제의 허리인 부품·소재산업을 통해 기업의 성공과 벤처 재도약의 성공신화를 다시 한번 써보자.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바로 우리 벤처기업이다. 벤처가 바로서야 나라가 서는 것이다.